

격 월 간 발 행
2022.8/9
vol.291

사람 세상



엄마가 안아주기를 기다리는 장애아동(미안마)

www.hanbeot.org

“하나의 벚, 모두의 벚”



한 벚 이 하 는 일



뇌병변 단기거주시설 운영

(정원 10명,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주말 혹은 단기위탁 가능)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뇌병변 · 지체 주간보호, 정원 10명)

미안마 한벗지부 운영

(미안마, 필리핀 등 빈곤국장애인 휠체어 및 중고 유모차 장애인들에게 기증)



미안마방정환기금

(어린이잡지를 미안마의 농촌학교와 고아원에 매월 기증)

한벗투어

(장애인 국내 및 해외 여행지원/리프트 버스 및 승합차 운행)



한벗보조공학센터

(전동휠체어 및 수동휠체어 무료대여, 보조기구 지원)

고양시지속종합복지관 운영

(고양시 지속동의 임대아파트 단지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사업 수행)



한벗의 휠체어 기증

어가 필요하다. 그러나 빈곤국은 병원에서도 보기 힘들다. 휠체어는 삶을 바꾼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이 빈곤국에 제일 많이 보내는 구호품의 하나가 휠체어이다.

국내 유일의 휠체어 기증단체 - 한벗

한벗은 어려운 재정에도 10년째 빈곤국에 기증을 계속하고 있다. 삼성생명 지원으로 전동휠체어 3,500대를 중국에, 수동휠체어는 황기순 선생이 모금한 1,400대와 한벗이 수집한 중고품 100대를 미얀마, 필리핀, 라오스 등에 보냈다.

최고의 선물, 휠체어

표지 사진, 누워 있는 이 예쁜 아이에게 무엇을 주면 좋을까? 휠체어다. 휠체어가 있으면 바닥에서 벗어나 마당에서 일하는 엄마를 구경할 수 있다.

지적능력이 정상인 사진의 미얀마장애인은 30살이 되도록 오로지 눕거나 옆드린 채 살고 있다. 또 한 아이는 너무나 심심해 방에서 복도로 기어 나왔다. 사람이 보고 싶어서 -

그 흔한 휠체어가 없어서 이다. 그래서 바닥에서 기거나 몸을 굴려 움직이고, 옆드려서 먹고 누워서 용변을 본다. 7-80년대 우리나라도 그랬다. 한벗은 이런 장애인에게 휠체어가 준 기적 같은 변화를 잊지 못한다.

구호물품 휠체어

끊이지 않는 전쟁과 폭력에 희생된 부상자에게엔 휠체



또 2015년부터 휠체어 대용품인 중고유모차는 2,800대를 보냈다. 지구촌에는 1억대의 휠체어가 필요하다고 한다. 한벗은 이 일을 계속한다.



휠체어 기증왕 황기순 씨의 고행

국내 유일의 휠체어 기증자



한국에서 장애인에게 휠체어 기증을 계속하기론 연예인 황기순 씨가 유일하다. 올해로 22번째, 그간 국내와 빈곤국장애인에게 2,415대를 기증했다. 모금액 6억5천만원. 놀랍다. 마스크도 알리지 않는 이 일을 어떻게 20년

넘게 계속하는 것일까?

퇴출된 인기 연예인

1990년대 말, 황기순은 인기 코미디언이었다. 돈이 좀 생기자 그는 필리핀의 도박판에 끼어들었다. 그리고 1년 만에 알거지가 되었다. 라면 한 개를 4등분해 먹다 간신히 비행기표만 얻어 귀국했을 땐 연예계로 돌아갈 수 없었다. 연예계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반듯하고 성실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세계이다.

속죄의 휠체어

그는 자신의 얼굴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속죄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피범벅이 된 손으로 부산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휠체어에서 일어났다. 순간, 자기처럼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 없는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머리를 때렸다. 그의 휠체어 기증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고행을 자처한 모금

고행의 모금은 굳이 무더운 8월을 택한다. 초기에는 대전까지 휠체어로 갔지만, 나이가 들자 대신 자전거로 주행한다. 작년, 재작년은 코로나로 중단했다. 20년을 계속했으니 이 참에 그만 하려니 했다. 그런데 지난 8월, 남대문시장과 인천 월미도에서 재개하고 있지 않은가! 관객에 섞여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하나의 장엄이었다. 이젠 장애인을 위한다는 우리가 속죄해야 한다.

지금 미얀마는 어때요?



강요된 평온

미얀마의 시민항쟁으로 1,800여 명이 죽고, 14,000 명이 갇혔다, 지도자 100여명이 사형 당했고 난민 3만여 명이 태국국경으로 피신했다. 변방의 소수민족 거주지엔 정부군의 폭격과 전투가 계속되고 있지만 군부는 쿠데타 성공을 공표, 대도시는 강요된 평온상태이다.

과거로 돌아간 미얀마

이제 미얀마 국민은 지긋지긋한 군부독재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지난 65년 동안의 군부통치는 남아시아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를 아시아 최빈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작년의 시민항쟁 후,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한 싸움에 나서야 한다.

사진 한 장이 증언하는 현재의 미얀마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이 사진이 지금의 미얀마를 강변하고 있다. 아시아 최대의 쌀 수출국 국민이 굶주리고 있다. 물가와 환율폭등, 수출과 외국인 투자 중단으로 보잘 것 없던 산업마저 나락으로 떨어져 실업자가 거리를 메우고 있다. 미얀마인이 지극정성으로 받드는 스님들은 침묵하고 충알을 맞으며 절규하던 자유는 사라졌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어린이

불행한 나라

무엇보다 아이들이 걱정이다. 전적으로 시민의 보시에 의존하는 1,500여 곳의 사원보육원생 30만명은 무엇을 먹고 지낼까? 궁핍해진 경제사정으로 사원에 맡기는 아이들은 늘어날 텐데-. 손에 쥔 건 없지만 달려가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월체어 30대와 유모차 200대를 9월 중 미얀마로 보냅니다. 방문은 미얀마 정황을 고려하여 11월초로 연기하였습니다.

보육원합창단을 만들려는 민성숙 선생과 현지 체류 봉사를 준비하는 김옥주, 정순이 부부, 백진양 선생이 떠납니다. 동행하실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등지에 오면 누구나 '엄마' 가 돼요

세상에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군가? 엄마이다.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김영호 씨는 누구나 '엄마' 라고 부른다. 직원은 물론 나이 어린 식구에게도 '엄마' 하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엄마가 된다.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기억력이 크게 떨어진 영호 씨는 이상하게도 노래 가사만은 잘 외운다. 하루는 영호 씨가 노래를 흥얼거리게 기우려보니 하춘화가 부른 '잘했군, 잘했어~' 이다. 그래서 주머니 받거나 하며 같이 흥겹게 불러재겼다.

그렇지~ 우리 모두 '잘했군, 잘했지!'

짜장 박사 납시오!

지난 7월 말, 우리 등지를 사랑하는 '김인곤' 선생이 중국집을 운영했다는 친구 '손인호' 선생님을 모시고



왔다. 손 선생님이 쑥스러워하며 주방으로 들어가신다. 중국요리를 직접 하신 분이래 짜장면이나 탕수육 짬은 손쉽게 만들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가만히 지켜보니 짜장면 하나에도 수많은 손길과 정성이 담기는 것이었다.

드디어 짜장면 냄새가 등지를 휘감자 식구들이 방에서 튀어 나와 잔치가 시작되었다.

선생님 언제, 또 와주실거죠?

맛있게 먹었습니다. 선물 고맙습니다.

[개인]

- 김수혜 두유 / 김영신 롤케이크 등 / 김인곤 삼겹살
- 노영진 케이크, 빵 / 송재하 과자 / 오영옥 롤케이크
- 원현선 과자 등 / 유선민 피자 등 / 윤숙현 복숭아 / 여일구 생닭
- 이태균 커피 / 하인석 아이스크림 / 익명 아이스크림

[단체]

- (사)중애모 라면 / 예당식품 음료 / 롯데카드 식재료 등
- 마포사복협의회 떡 등 / 부흥세탁소 아이스크림 등
- 시니어클럽 쿠키 / 열림교회 쌀 10kg / 푸드뱅크 빵, 과자

※이번 호부터 기부금 후원현황을 소식지 뒤쪽으로 옮겨 실습니다.

지속복지관 소식

고양시지속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 가져



지난 7월 26일 고양시지속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김영식 시의회위원장, 한준호 국회의원, 문명순 지역위원장, 정성기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을 비롯해 도의원과 시의원 등 내빈과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이 날 송미령 관장은 하나의 벗, 모두가 벗이 되는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 직원과 함께 헌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최명숙 이사장과 채진석, 김혜명, 유형진이사와 김훈 감사, 산하 시설장들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2022년 싸릿말 바자회와 축제 열려



6월 22일~23일, 이틀에 걸쳐 복지관에서 생활물품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첫 바자회인 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신발, 가방, 모자, 청바지, 면바지, 치마, 레깅스, 수유복 등 다양한 물품들을 판매하였습니다. 둘째 날에는 체험부스에서 클레이로 자신의 나이를 20살로 가정한 편지쓰기 프로그램을 가진 후, 본 행사인 '마당극 한마당' 을 가졌습니다. 이 마당극은 '신나는 예술여행' 에 선정된 문화예술공연으로 마술쇼를 시작으로 구수한 노래가락이 곁들인 공연이 1시간 20분에 걸쳐 펼쳐졌는데, 참석한 주민들의 '하하, 호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속종합사회복지관 02)381-8938

주간보호실 소식

온돌방을 새로 꾸몄어요



시공 전

바닥 온돌장판

칸막이 문

보호실의 온돌방

종일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하는 우리 주간보호실 이용자들에게는 누울 수 있는 온돌방이 꼭 필요합니다. 안마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신변처리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안온한 방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기존의 온돌방은 문이 없어 늘 개방되어 있는데다, 공간이 비좁아 3명밖에 눕지 못했습니다.

여름방학 중 공사

그러다 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에서 지원하는 사업공모를 발견하고 신청한 결과, 우리 주간보호실이 선정이 되어 지난 여름방학 1주일 내내 공사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방학 후 처음 등원한 월요일 아침, 우리 이용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새로 꾸민 온돌방에는 접히는 칸막이 문이 달려 여담을 수 있고, 5명이 편하게 누울 수 있게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난방공사와 아울러 새 침구까지, 깔끔하고 예쁜 방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주간보호실 공간을 많이

차지하던 휠체어 보관을 위해 주차장에 별도의 보관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제 구경 오세요!

감사드립니다

이용자들에게 기쁨과 편안한 휴게공간을 만들어주신 ‘따뜻한동행’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세밀한 부분까지 배려해주시는 공간복지지원사업팀과 시공업체 (주)더몽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후원물품 고맙습니다

- 구세군 희망 나누미 - 닭갈비 10개, 구워먹는 치즈 3개, 밀키트비빔밥 12개
- 푸드뱅크 - 빵 60개

한벗재단 소식

피부미용이 준 행복



저는 오랜 세월, 여성이 아닌 장애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남이 입히기 좋은 험렁한 옷만 입어야 했고, 화장하기처럼 여성으로서 예쁘게 꾸미는 건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여동생이 엄마와 미용실 다니는 모습을 부러워하면서도 여성으로서의 미적 추구는 나와는 무관하다고 일부러 외면해왔습니다. 여성이기 전에 장애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어 자립생활을 시작하며 제일 먼저 했던 건, 가족과 살 때는 차마 입 밖에 꺼낼 수도 없었던 과감한 시도, 귀를 뚫은 일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비로소 장애인이기 전에 여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여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여성이 동경하는 아름다움에는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그 행복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한국미용학회 피부분과위원회 선생님들이 한벗에서 피부미용 서비스를 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설렷습니다. 저로서 꿈도 못 꾸던 일이었으니까요. 드디어 난생 처음, 피부미용을 받았을 땐 제 속의 여성성이 미소를 띠며 솟아올랐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또 얼굴뿐만 아니라 몸 구석 구석의 근육까지 풀어주어 저는 마치 바람에 올라탄 느낌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이나 제 얼굴과 온몸에 사랑과 정성을 쏟아주신 피부미용사님들도 아름답고, 너무 고맙습니다!

- 이 정 신



피부미용서비스 협약식 가져

지난 7월 23일, 한국미용학회 피부분과위원회(김은영 위원장)와 한벗재단은 협약을 맺고 앞으로 매월 1회 서비스를 갖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토요일 3시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7월과 8월에는 3회에 걸쳐 25명이 받았습니다.

9월 24(토) 3시부터 시작합니다.

신청 : 02)393-0661

사람세상 8/9월 07

후원회원

93세 조윤식 선생의 기부

최고령 이동봉사회원

1995년 마포 용강동, 식당 '길산'의 구석에 마련된 한벗 사무실에 노인 한 분이 찾아왔다. 김지수 간사가 휠체어를 밀고 나오며 반갑게 맞는다. '장애인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후 노인은 2년 동안 매주 1회, 이동봉사를 이어갔다. 당시 200여 봉사회원 중 최고령이었다. 68세를 넘고부터는 힘이 부쳐서인지 정기후원을 시작하신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매월 어김없이 기부를 계속하고 계시다. 무려 25년의 세월이다!

녹 쓸지 않은 노후

정기기부를 매월, 그것도 25년이라면 반듯하고 단정한 생애를 사신 분이 아닐 수 없다. 올해 93세, 세상만사가 흐릿하고 무덤덤할 연세인데, 또렷하고 지극하시다. 지난달엔 한벗 소식지를 보고 미안마를 위해 30만원을 기부할 정도로 남의 나라 걱정까지 하신다.

돈 빠듯하게 살지만 후덕하고 찬찬하시어 아파트주민 모임을 이끌고, 지금도 일주일에 두 번 테니스를 하신다. 평생 몸 쓰기를 마다하지 않은 때문인지 꼳꼳한 허리에 걸음 또한 젊은이 같다. 비싼 식당 안 가고 바쁘다며 택시 타는 법이 없다. 길가 쓰레기를 보면 저절로 허리가 굽혀지고, 젊은 사람이 무시해도 덤덤하다.

늙는 일의 어려움

평안남도 남포 출신. 6·25 전쟁 전, 18살 때 친구 셋과 빈손으로 남하했다. 한벗에 기부를 계속하는 건 힘겹게 살아온 세월의 가르침이란다. 시간 많을 90 노인이 자기 이야기 일절 않고, 얼른 마을 버스에 오른다. 아, 늙는 일이 만만치 않구나!

미안마 한벗센터 건립비 기부 감사드립니다

양 숙(전 소록도 간호조무사) 10만원. 조윤식(정기후원자) 30만원.

한동훈(전 직원) 50만원

□ 8월말 현재 합계 : 340만원

□ 송금 : (국민은행) 763601-04-155077. 예금주 한벗재단





바다가 보고 싶은 사람들

약 냄새 찌든 방에서 사는 루게릭, 진행성근육병 등 중증의 희귀병 환자는 바다가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특수차량을 빌리고, 2명의 보조인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숙식업소와 코스를 미리 답사해야 해서, 한 번에 100만원이나 소요됩니다.

한뼘은 이런 분들의,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여행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독지가의 특별기부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류 외국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대여 - 같이가치 모금 중

국내 체류 중인 외국장애인이나 방한 중 다리를 다친 외국인들에게 휠체어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체류하는 조선족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를 기증하기 위해 '같이가치'에서 모금하고 있습니다.

응원하트와 댓글 공유를 활용하면 총 300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세요.

한뼘 장애인 여행 02)702-1515

<특별기부금 감사드립니다>

- 나운영기념사업회 나건 이사장님이 모친인 유경손 전 고문의 기일에 매년 기부금 30만원을 보내주십니다. 한뼘을 사랑하신 고인이 그립습니다.
- 김보경 님의 결혼기념 기부(10만원), 올해도 보내오셨습니다. 뵙고 싶습니다.
- 지축복지관의 전기차 마련기금 고맙습니다.

김영미 400만원, 송미령(관장) 200만원, 임령택 100만원

- 휠체어날개달기 회원인 김경미 님, 6월 20만원에 이어 7월에도 10만원을.



국기호님의 가을 추석 선물

- 달라스의 김애자 선생님 소개로 김명자 님 5만원
- 국내 체류기간 중 휠체어를 빌려간 William Moyer과 Remi Wanless 님이 휠체어를 반납하며 각 10만원씩 기부해주었습니다.
- 민성숙 선생님 소개로 김순희 님이 3만원을 미얀마방정환기금에 기부해주셨습니다.
- 가을을 담아 보내주신 국기호 님의 추석선물



추석명절, 풍성하게 지내셨는지요? 님의 지극함도 이 가을에 익어갑니다.

22년 6월 ~ 7월 입금내역. ()안은 개월 수

〈미국 텍사스 교민 기부금(달러, 칼린)〉

달러(\$2,100)		칼린(\$810)			
7월	8월	7월		8월	
김애숙 \$20	김애숙 \$20	고향미 \$20	성인숙 \$30	고향미 \$20	성인숙 \$30
김윤경 \$500	김윤원 \$200	김글라라 \$20	엘리자벳 \$20	김글라라 \$20	이사벨라 \$20
(Easy Comm)	김익태 \$20	김은희 \$20	이사벨라 \$20	김은희 \$20	이영란 \$20
김윤원 \$200	스텔라 \$150	김데레사 \$20	이영란 \$20	김데레사 \$20	엘리자벳 \$20
김익태 \$20	장덕환 \$200	김헬렌 \$20	이정숙 \$20	김헬렌 \$20	이정숙 \$20
스텔라 \$150	조대웅 \$20	김혜중 \$20	조마리나 \$30	김혜중 \$20	조용순 \$20
장덕환 \$200	지나 김 \$20	미영로사 \$20	조용순 \$20	미영로사 \$20	최정임 \$30
지나 김 \$20	케니 김 \$30	박순화 \$20	최정임 \$30	박순화 \$20	허양욱 \$20
케니 김 \$30	한영숙 \$300	백수산나 \$20	허양욱 \$20	백수산나 \$20	김양수 \$20
		베로니카 \$20	베로니카 \$20	베로니카 \$20	(공주님~ 책값)
\$1,440	\$660	\$410		\$400	

〈한벗재단〉

문숙자(2) **이상 1,000원**
 김계순(덕양2), 김미란(2) **이상 2,000원**
 강희춘(2) **이상 3,000원**

강난규(2) 강병철(2) 강하늘/장은혜(2)
 강하얀/장은혜(2) 공충식(2) 곽안나(2)
 곽환상(2) 구자균(2) 구재순(2) 김관중(2)
 김대현(2) 김동수(2) 김명문(2) 김미영(2)
 김선희(2) 김시홍(2) 김영희(2) 김유경(2)
 김준혁(2) 김태호(2) 김향미(2) 김혜숙(목동2)
 김혜정(2) 나호연(2) 노수진(2) 류소연(2)
 문혜원(2) 박범진(1) 박병건(2) 박상준(2)
 박용훈(2) 박정민(2) 박지현(2) 배재수(2)
 서동욱(2) 설대호(2) 신성아(2) 신인아(2)
 신혜경(2) 엄민애(2) 오형균(2) 유경희(당산1)
 유해국(2) 이동하/한귀남(2) 이란희(2)
 이상희(2) 이승영(2) 이승희(2) 이양훈(2)
 이종수(2) 이행남(2) 이호열(2) 임정리(2)
 장수관(1) 정길순/박지양(2) 정해숙(2)
 조명순(2) 조규영(2) 주우익(2) 최수진(2)
 최원진(2) 한진숙(2) 현승혜(2) 홍영일(2)
 홍혜경(2)

이상 5,000원

(주)상정무역(2) (주)영화의료기(2) 강석보(2)
 강인호(2) 강희정(2) 구다완(2)
 구영현/구인복(2) 구자석(2) 권수영(2)
 권오원/주은혜(2) 권인순(2) 김경민(2)
 김경석(2) 김교일(2) 김기석(2) 김남중(2)
 김동진(2) 김동현(2) 김려원(2) 김민수(2)
 김범수(2) 김보경(2) 김보금(2) 김상순(2)
 김석미(2) 김수리(2) 김영지(2) 김옥남(2)
 김완섭(2) 김용남(송파2) 김용남(효창2)
 김용선(2) 김윤대(2) 김윤숙(2) 김은숙(2)
 김은재(2) 김인숙(4) 김인숙(부산2) 김자경(2)
 김재환(2) 김중용/전정원(1) 김정욱(2)
 김준형(2) 김진수(1) 김진원(안산2) 김철희(2)
 김학철(2) 김한영(2) 김향(2) 김현준(2)
 김형배(2) 김형식(2) 김화중(2) 나호진(2)
 노현욱(2) 류희수(2) 민경양(2) 민운기(2)
 민준홍(2) 박갑수(2) 박경남(2)
 박상준(의정부2) 박선영(2) 박순화(2)
 박영호(2) 박영희(2) 박윤미(2) 박인재(2)
 박일현(2) 박중성(안양2) 박지숙(2)
 박지훈/정선희(2) 박태진(2) 박혜정(2)
 박희정(2) 방계영(2) 방상호(2) 배경미(2)
 배춘숙/김신근(2) 백지웅(3) 서동범(2)

서동원(1) 서미란(2) 서영란(2) 석지민(2)
 석지은(2) 석창록(2) 성경희(2) 송기영(2)
 송정석(2) 송유자(2) 신동혁(2) 신영길(2)
 심우진(2) 심지은(2) 안병훈(2) 안성진(2)
 안혜정(2) 양일섭(2) 오병철(2) 오상만(2)
 오상분(2) 오성곤(2) 오용석(2) 윤경자(1)
 이건수(2) 이금주(2) 이동인(2) 이명수(1)
 이명옥(2) 이명진(2) 이명철(2) 이미지(2)
 이민숙(2) 이삼선(2) 이상일(2) 이상조(2)
 이선미(2) 이성식(2) 이승균(2) 이수경(2)
 이양재(2) 이영근(2) 이영환(2) 이외선(2)
 이은주(2) 이재원(2) 이재임/정윤택(2)
 이종빈(2) 이종태(2) 이지영(미아2) 이지원(2)
 이진훈(2) 이형영(1) 이호성(2) 임경민(2)
 임난숙(1) 임옥자(2) 임정순(2) 장길성(2)
 장치복(2) 장철성(2) 전미희(2) 전민우(2)
 전소연(2) 전수익(2) 전현규(2) 전현민(2)
 정규성(2) 정미영(2) 정봉열(2) 정석환(2)
 정성훈(2) 정수연(2) 정수익(2) 정수화(2)
 정승은(2) 정인기(2) 정정교(3) 정창용(2)
 정태영(2) 정현주(2) 조근제(2) 조기권(2)
 조선행(2) 조성숙(2) 조여숙(2) 조재선(2)
 조진영(2) 조화기(2) 지형근(2) 천성현(2)
 최강석(2) 최명선(2) 최순희(2) 최종문(1)
 최준수(2) 최태도(2) 최효순(2) 추정일(2)
 태효원(2) 표창호(2) 하정희(2) 한경미(1)
 한성진(2) 한혜숙(2) 함정혜(2) 함형덕(2)
 허욱희(2) 홍관선(2) 홍대식(2) 황경희(1)
 황백화(2) 황연희(2) 황정일(2) 황해국(2)

이상 10,000원

김병석(1) 현영돈(2) **이상 15,000원**
 (주)인스월드닷컴(2) 강만희(1) 강순화(2)
 강영철(2) 김민주(울산2) 김수현(2) 김승태(2)
 김영자(1) 김용신(2) 김준희(2) 김학준(2)
 김혜은(2) 김훈(2) 문장렬(2) 박지웅/유정영(1)
 백봉현(2) 서성민(2) 신광재(2) 심경애(2)
 안현국/하미경(2) 양숙(2) 양옥연(2) 양홍대(2)
 이주연(2) 오정연(2) 유광주(2) 이광범(2)

이남숙(2) 이상규(2) 이상권(2) 이서중(2)
이선용(2) 이성재(2) 이정림(2) 이주형(2)
이희재(2) 임원기(1) 조윤식(2) 최경희(2)
이상 20,000원

강재철(2) 김은경(1) 김홍헌(1) 민유숙(2)
민정범(2) 박상우A(1) 박용길(1) 신화웅(2)
오청근(2) 윤경자(1) 이관희(2) 이상길(2)
이선희(2) 이희달(2) 임용재(2) 장혜실(3)
정병배(2) 황영배(1) 홍성관(2)
이상 30,000원

박종성(2) **이상 35,000원**

고명지(2) 서판임(2) **이상 40,000원**

김은영(2) 김은주(2) 김의규/구자명(2)
김지웅(2) 김현수(2) 김홍헌(1)
민택산업/남기백(2) RTX스포츠(2) 엄혜령(2)
오명희(2) 유시영(2) 이정숙(2) 이종우(2)
최해자(2)
이상 50,000원

(주)우석엘리베이터(2)
(주)힐로피아/김윤제(2) 강무진(2) 구태연(2)
김윤희(2) 노희정(1) 박지연(2) 안성환(2)
오선환(2) 어재형/신지영(2) 오정선(2)
이승수(2) 이영숙(2) 장우형 부이사장(1)
이상 100,000원

채진석 이사(2) **이상 150,000원**

명지춘해병원 교회(1) **이상 900,000원**

특별후원금 : William Moyer 10만원.
Remi Wanless 10만원. 김보경 10만원.
명지춘해병원 교회 90만원
물품후원 : 천하상사(츄리닝, 유니폼, 운동복 등 6박스 / (주)레이(마스크 50박스)

<휠체어날개달기>

전교수(2) **이상 3,000원**
조성우(2) **이상 5,000원**

고은미(2) 고은순(2) 권은희(2) 김계호(2)
김동현/김승기(1) 김병석(2) 김서주(2)
김소하(2) 김순영(2) 김순이(2) 김영숙(2)
김용환A(2) 김이태(2) 김정애(2) 김정자(2)
김정태(2) 김진모(1) 김창복(2) 김태윤(2)
김현숙(노원)(2) 김혜숙(2) 남향숙(2)
민혜영(2) 박만수(2) 박미애(2) 박수경(2)
박신웅(2) 박신자(2) 박용자(2) 백마강(2)

백순정(2) 서정숙(2) 서판임(2) 신승엽(2)
안종필(2) 안지민(2) 안지우(2) 양노식(2)
유은수(2) 윤민정(2) 이가영(2) 이광호(2)
이상분(2) 이영분(2) 이은영(2) 이은희(2)
이지영(2) 이창욱(2) 이재숙(2) 이지수(2)
이진수(2) 이해령(2) 이현경(2) 이형재(2)
이혜선(2) 이희승/김향련(2) 임연하(2)
임찬예(2) 임채영(2) 임현주(2) 장궁자(2)
장은술(2) 장은수(2) 장일순(2) 장진숙(2)
장화순(2) 전도삼(2) 전영희(2) 전옥순(2)
전혜경(2) 정금숙(2) 정나원(2) 정안나(2)
정애리(2) 정영순(2) 정우담/정원규(2)
정재갑(2) 정재호(2) 정재희/주희(2) 정현묵(2)
조선행/김은하(2) 조용환(2) 조혜숙(2)
최광원(2) 최옥희(2) 최유경(2) 최윤지(2)
최진숙(1) 추경은(2) 한정민(2) 한충길(2)
한혜영(2) 홍경숙(2) 홍상문(2)
이상 10,000원

강용희(2) 강인숙(2) 김경숙(2) 김덕길(2)
김일생(2) 김진형(1) 김철상/이공이(2)
김효생(2) 박정경(2) 오문영(2) 이상희(2)
이연우/박정현(2) 이해숙(2) 장연우(2)
장지분(2) 장혜실(3) 장혜연(2) 전승완(2)
정경호(2) 조민숙(1) 조수현(2) 조승호(2)
최대우(2) 최명숙(2) 한광희(2)
이상 20,000원

(주)송지(2) 김옥수(2) 김옥주(2)
이건우/박정현(2) 이태자(2) 최진경(2)
이상 30,000원

(주)서버존(2) 김혜명(2) 이승훈(2) 최정희(2)
강옥순(2) 박봉희(2) 장영순(2)
이상 50,000원

박형상(2) **이상 100,000원**
변천섭(2) **이상 200,000원**

특별후원 : 백기완 120,000원 /
김경미 300,000원 / 김지영 1,000,000원

<한빛동지>

고현우(2) 공아영(2) 권명현(2) 기호순(2)
길 현(2) 김계자(2) 김민서(2) 김승빈(2)
김용락(1) 김인경(2) 김재열(2) 류민경(1)
마은영(2) 맹덕섭(2) 문소현(2) 박미현(2)
박지숙(2) 박창범(2) 서정민(2) 송효림(2)
심상우(2) 양윤희(2) 양인희(2) 여희숙(2)
오현숙(2) 우지영(2) 육순우(2) 이현주(2)
이혜란(2) 임경숙(2) 임정혜(1) 정민영(2)

정선희(2) 정정임(2) 조은미(2) 최은미(2)
한경희(2) **이상 5,000원**

강순기(2) 강유승(2) 강인수(2) 강현(1)
강훈선(2) 고유미(2) 박봉현(2)
곽영현/장형기(2) 구성모(2) 구혜림(2)
권오준(2) 김기래(2) 김면봉(2) 김병순(2)
김명희(일산) 김미애(2) 김미진(2) 김병준(2)
김상수(2) 김선욱(2) 김선향(2) 김세연(2)
김석경(2) 김성길(2) 김수혜(1) 김연주(2)
김영진(2) 김예찬(2) 김용미(2) 김우주(2)
김윤근(2) 김윤희(2) 김인곤(2) 김인숙(2)
김인순(2) 김정현(2) 김태연(1) 김혜정(1)
김호영(2) 남성현(2) 남진숙(2)노신규(2)
노영진(1) 류재남(2) 박리라(2) 박상현(2)
박성준(2) 박용수(2) 박일현(2) 박창훈(2)
박정숙(2) 박정신(2) 박지원(2) 박찬울(2)
박해진(2) 변기정(2) 변아름(2) 서동연(2)
서민향(2) 서인숙(2)서정민(상암)(2) 서희주(1)
성다혜(2) 소기자(2) 송옥진(2) 송은숙(2)
송재하(2) 신동연(2) 안국희(1) 안영미(2)
양용준(2) 양정현(2) 양향자(2) 양현태(2)
여일구(2) 오광진(2) 오성진(2) 우기후(2)
우영순(1) 우춘자(2) 유민화(2) 윤정애(2)
윤태훈(2) 이경진(2) 이대환(2) 이상수A(2)
이상수B(2) 이성림(1) 이소정(2) 이송순(2)
이영순(2) 이옥순(2) 이용식(2) 이재호(2)
이종욱(2) 이지영(2) 이태환(2) 이혜순(2)
이희권(2) 이희숙(동지)

인보광/박수빈/박혜빈(2) 임경철(2) 임진민(2)
임진희(2) 장순주(2) 장영숙(2) 장진섭(2)
장철만(2) 장현우(1) 전애스더(2)
정다미/김재훈(2) 정영석(2) 정영진(2)
정원교(2) 정재영(2) 정진화(2) 정향남(2)
제갈윤(2) 조수연(2) 조인규(2) 차민우(1)
채순옥(2) 채영심(2) 천병수(2) 최경희(2)
최미정(2) 최선영(2) 최순우(2)최은미(2)
추지훈(2) 한지행(2) 홍윤재(2) 황진숙(2)
이상 10,000원

강신순(2) 강희정(2) 김경란(2) 김미진(2)
김성우(2) 김여은(2) 김정아(2) 김희량(2)
문정희(2) 박민희(2) 박승환(2) 백진선(2)
송선미(2) 원석범(1) 유선민(1) 윤덕수(1)
이병수(2) 이선우/김영희(2) 이정림(2)
이지영(강서) 정현주(2) 조기택 (2)
조은이(2) 지현정(2) 진 권(2) 채순옥(2)
하복덕(1) 한재형(2) 한혜림(2) 황민규(1)
함중수/한정옥(2)

이상 20,000원

권미정(2) 권현정/김성철/김주영(2) 김계업(2)
 김윤영(동지2) 박희수(2) 성낙일(2) 오범균(2)
 윤일심(2) 이수경(2) 이웅기(2) 이재용(2)
 임재창(2) 임해숙(2) 정은영(2) 조길용(1)
 조병훈(2) 조은주(2) 최갑석(2) 황정현(2)

이상 30,000원

백승열(2)

이상 40,000원

곽형우(2) 권영수(2) 김간관(2) 김중호(2)
 김한서(2) 윤미선(2) 이태균(2) 조성윤(2)
 조항미(2)

이상 50,000원

열림교회(2) 유정재(2) 주지연(2) 홍영미(2)

이상 100,000원

서울서부지방검찰청(1) 하대주(2)

이상 200,000원

서강어린이집(1)

이상 411,000원

〈한벗동지와 함께하는 '윤광이의 하루'〉



박현민(2)

이상 5,000원

구인회(2) 김규백(2) 김선식(2) 김왕수(2)
 김진아(2) 안성운(1) 이광석(2) 이수희(2)
 이종현(2) 이준구(2) 이탄희(2) 임건태(2)
 전경락(2) 정형선(2) 최봉계(2) 최원우(1)
 홍원표(2)

이상 10,000원

강완정(2) 강진구(2) 박성용(2) 박영숙(2)
 손병산(2) 이강우(1)

이상 20,000원

김경준(2) 김기수(2) 김선광(2) 이태희(2)

이상 30,000원

김혜원(2) 유경환(2)

이상 50,000원

최수진(2)

이상 70,000원

강은모(2) 오유인(2) 이준구(2) 차성안(2)

이상 100,000원

〈주간보호센터〉

김운수(2) 조승현(2) **이상 5,000원**

김미영/허규민(2) 김세훈(2) 김인기(2)

박채련(2) 양영춘(1) 윤준호(2) 이경주(2)

이경화/이기훈(2) 이수경(2) 이호석(2)

정미숙/박성수(2) 차경옥(2) 한정환/박종미(2)

이상 10,000원

김민정(2)

이상 15,000원

김정훈(2) 김중범(2) 신호숙(2) 심진섭(2)

엄해경/김근일(2) **이상 20,000원**

신두철(2) 안소영(2) 오선주(2) 이원재(2)

한정환/한가현(2) **이상 30,000원**

신현관(2) 장안태(2) 홍지웅(2)

이상 50,000원

김현진(1)

이상 100,000원

통권 제 291호
 발행일:2022년 9월 10일
 발행인:최명숙 제작:한벗재단
 주소: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69길 42-3
 TEL:(02)393-0661(대)
 MOBILE:010-6747-0661
 FAX:(02)712-6093
 이메일:hanbeotorg@hanmail.net
 홈페이지:www.hanbeot.org
한벗재단 임원
 법인이사:최명숙(이사장) 장우형(부이사장)
 김윤원 김정희 김혜명 윤승모 채진석
 유형진 유시영
 법인감사:강만희 김훈
 운영위원회:백진양(회장) 권진동 김자희
 김현숙 엄해경 이경화
부서별 연락처
 한벗동지:02)336-3100
 주간보호:02)713-5050
 휠체어기증본부:02)713-1005
 한벗투어:02)702-1515
 고양시 지축종합사회복지관:02)381-8938

22년 6 ~ 7 월 재 정 보 고 (2개월 합산)

(단위:원)

수 입		지 출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후원금	정기(재단)	12,409,000	급여	12,400,990
	특별후원금	1,120,000	퇴직금	4,694,004
	미국교민	2,416,000	사회보험	1,974,150
	동지/주간	7,210,000	후생비	600,000
	날개달기기금	4,506,000	기관운영비	100,000
	방정환기금	1,708,000	직책보조비	1,160,400
기타	마안마센터건립	900,000	경조비 등	550,000
	장애인차량운행	440,000	소식지제작	737,200
	관리비수입	1,628,819	건물관리비	411,400
룸 임대료	7,000,000	사업비	시설비	870,000
잡수입	980,950	수수료	3,724,863	
		공공요금	소모품비	119,500
		상환금	전기 등	601,050
			날개달기	5,176,000
			방정환기금	1,787,200
		기타사업	2,332,394	
		공과금	재산세 등	1,682,870
		전출금	한벗동지	5,745,000
			주간보호실	510,000
		상환금	차입금	4,092,750
총계	48,616,251	합계	49,577,716	
		잔액	-961,465	

친밀한 타인

- 설미희

눈을 떴다
온 우주에 손가락 하나
까닥할 수 없는
몸만 똥똥 떠 있다
유일하게 감각이 살아 있는
이 잔인한 귀도 눈을 뜬다

지금은
남의 손이 아니면
소변조차도 뽑아낼 수 없는 몸똥아리

알람 소리에
감정 없는 기계적인 메마른 손길이
아랫도리에 관을 꽂는다

바우처 카드 720시간
늙은 여자가
친절하게 바코드를 찍는다

연명을 위해
얼마의 돈이 필요해서
소변 줄을 꽂아 주고 있을까

집 안 가득
소변 줄을 타고
아직 살아 있다는
존재의 냄새가 난다

설미희(여, 1965년생, 뇌병변장애)

구상숏대문학상 방귀희 회장(한국장애인예술협회)이 1991년부터 운영하던 '숏대문학상'의 발전을 위해 구상 시인이 2억원을 기탁하여 2005년 제정된 장애인문학상. 구상 시인은 우리재단의 고문으로 한빛회관 건립 시 2천만원을 출연하시기도.

사 람 세 상



죽은 사람을 위한 정기 기부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지인들은 빈소로 찾아가 고인을 추모하며 조의금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풍속이다. 그런데 별세한 지 7년이 지났는데도 매월, 끊임없이 조의금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분이기에 이럴까?

‘윤광이의 하루’를 위하여

2010년, 서울대를 졸업한 근육장애의 ‘남윤광’ 군이 한뼘등지로 왔다. 그는 밤새 매시간 체위를 바꾸어주어야 하고, 호흡기 사용이며 관장으로 배변해야 했다. 3명이 교대로 붙어야하는데 정부는 이런 인력을 지원할 리 없다. 결국 보조인 고용을 위해 모금을 시작했고 2013년에는 180명의 기부금으로 좁은 한뼘등지를 벗어나 인근에 월세 방을 얻었다.

그가 죽은 후

그는 아슬 한 목숨의 벼랑끝에서 용감하게, 전력을 다해 살았다. 그러다 2015년 1월, 흔한 감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스러지고 말았다. 불과 31살. 그런데 윤광이의 사투를 돕던 후원자들은 이후 어찌되었는가?

윤광이는 살아 있다!

놀랍게도 후원자 절반이 이번에는 윤광이가 살던 한뼘등지에 기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 아직도 ‘윤광’ 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

다음은 2021년 현재까지 정기후원을 계속하는 ‘윤광이의 하루’ 회원들이다. ()안은 횟수

강완정 24만원(12). 강은모 120만원(12). 강진구 24만원(12). 구인회 12만원(12). 권재현 3만원(1). 김경준 36만원(12). 김규백 12만원(12). 김기수 36만원(12). 김선광 36만원(12). 김선식 12만원(12). 김왕수 12만원(12). 김진아 12만원(12). 김혜원 65만원(13). 박병준 6만원(6). 박성용 24만원(12). 박영숙 24만원(12). 박현민 6만원(12). 손병산 24만원(12). 신재철 8만원(8). 안성윤 10만원(10). 오유인 120만원(12). 유경환 65만원(13). 이강우 20만원(10). 이광석 12만원(12). 이수희 120만원(12). 이종현 10만원(10). 이준구 120만원(12). 이준구(원주) 10만원(10). 이탄희 12만원(12). 이태희 36만원(12). 임건태 12만원(12). 전경락 12만원(12). 정형선 12만원(12). 차성안 120만원(12). 최봉계 12만원(12). 최수진 84만원(12). 최원우 6만원(6). 최형통 10만원(2). 홍원표 12만원(12). 익명 2만원(2).

※ 한뼘홈페이지에서 2015년~2021년까지 개인별 기부금 집계를 볼 수 있습니다.